

왕의 생활

글 | 이한

그림 | 김정현



글 | 이한

그림 | 김정현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윤성혜



옛날 왕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재미나게 놀고 맘대로 굴었을까요?
아니요, 무척 바빴습니다!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빠가 왕이고 엄마가 왕비인 아이는 원자가 됩니다.



원자가 자라면 세자로 책봉됩니다.

세자는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자는 성균관에서 입학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다음 왕으로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세자는 아침 공부를 하고 점심 공부를 하고 저녁 공부도
합니다.



좋은 왕이 되려면 많은 걸 공부해야 했습니다.
세자는 서연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부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꼭 참고 공부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이 공부해야 했을까요?
왕은 나라일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세자가 어른이 되면 관례를 치룹니다.

어른이 된 세자는 멋진 옷을 입고 세자빈과 결혼합니다.

이걸 가례라고 합니다.



왕이 죽으면 마침내 세자가 왕이 됩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고 가장 바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아침 점심 저녁 공부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밤낮없이 신하들과 만나 나라일을 의논합니다.



너무너무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왕은 몹시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늘 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왕들도 사냥을 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며 놀았습니다.

춤을 추거나 시를 쓰는 왕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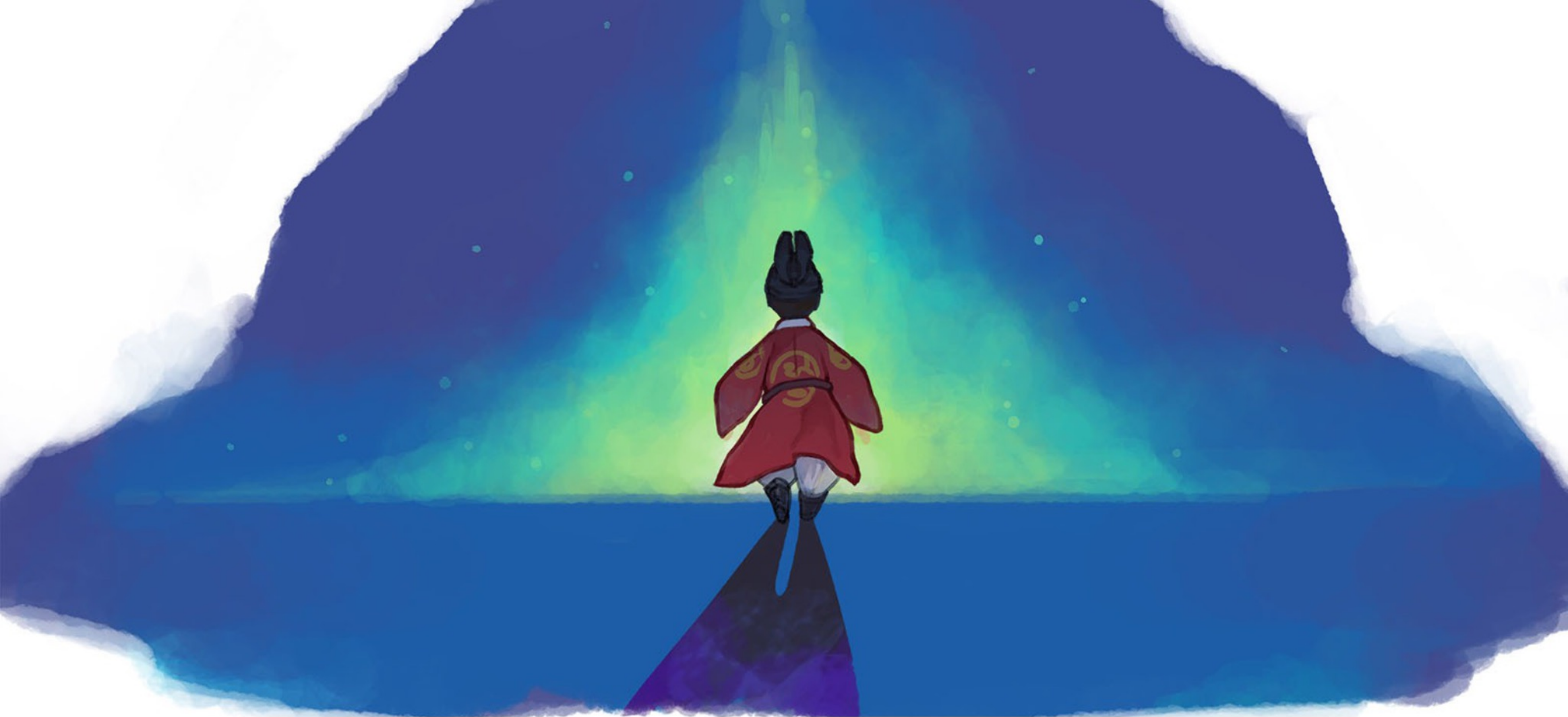
하지만 언제까지 놀 수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나라의 일을 해야지 놀면 안 됩니다!”

왕은 나라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만약 자기만 알고 멋대로 구는 왕이 있다면 신하들이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게 왕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왕이 죽게 되면 국장을 치르게 됩니다.
왕의 무덤은 특별히 ‘능’이라고 합니다.



역사에는 좋은 왕들도 있었고 나쁜 왕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을 가장 좋아하나요?

“왕의 생활”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